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지난 주간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의 교회 밖 현장실천이 있었습니다. 협력하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오늘 오후 3시 멧쟁이학교 학부모모임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멧쟁이학교가 24일(화)에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열리는 제 27회 포천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에 풍물로 참가합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27일(금) 오후 8시에 모입니다.
- 사랑방 바IBLE데이가 29일(일) 오후 2시30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여름공동체생활이 7월31일(목)부터 8월3일(일)까지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예지 · 김이레 집사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25 호

2025년 6월 2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며

지난 주, 교회 밖 현장 실천으로 10명의 신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사랑방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실천이란 말 그대로 학교나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배움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방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와 함께, 멋쟁이 학교 수업에 참관도 하고, 생활 공동체 방모임에도 참여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 머무는 동안 공동 식사에 참여하며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신학과 목회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과 더불어, 생활공동체 식구들과 만나 대화하며, 신학적인 원리뿐 아니라 삶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분들이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공동체를 소개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공동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 교회 안에서도 꽤 익숙해졌습니다. 전에는 '공동체'라고 하면, 공산당과 비슷하게 오해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의 작은 그룹들을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교회가 점점 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 고리도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함께 연합하거나 모이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심지어 신앙조차 개인화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한국 교회가 외적인 부흥과 성장에 많이 치중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면적이고 질적으로 성숙한 신앙에 관심을 갖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삶의 질을 생각할 때 공동체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심이 전환 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동체를 방문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길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늘 함께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故 로빈 윌리엄스 배우가 주연한 영화 '패치 아담스'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볼 때마다 깊은 감동을 줍니다. 주인공인 헌터 아담스는 삶의 방향을 잃고 자살을 시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 정신병동에 입원해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의사가 아닌 다른 환자들을 돕는 경험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치료받게 됩니다. 이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사의 길을 걷게 되지요. 헌터 아담스가 생각한 '의사'는 기존 제도권 의대 교육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환자를 병명으로 부르는 차가운 의료 관행을 깨고, 환자의 이름을 불러주며 안부를 묻고, 유머와 재치로 환자들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의술을 펼쳐갑니다. 그는 의학적 치료를 넘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의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문제를 넘어서 그 이면을 바라보는 법도 정신병동에서 만난 대부호 아더 멘델슨에게서 배웠습니다. '패치(Patch)'라는 별명 역시, 상처 난 곳을 덧대어 메우는 '패치'처럼, 환자들의 마음과 몸의 상처를 돌보고 치유하겠다는 그의 다짐에서 비롯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넘어, 가난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무료 병원을 세우는 도전으로 나아가게 되고 지금도 그 운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보고,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길이 비로소 길이 됩니다. 먼저 가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방이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주었기에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길이 되어 준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같이 걸어갑시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
 <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78, 365 / 210
 기도 :
 성경 : 레위기 25장
 제목 : 희년, 하나님 나라의 모습

- 내용: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주시다.(What)
 <문단구분>
 - 1~7절 안식년 규례
 - 8~17절 희년 규례
 - 18~22절 규례 준수 명령과 축복의 약속
 - 23~34절 토지와 가옥 매매에 대한 규례
 - 35~55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규례
- 의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Why)
 - 안식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 희년은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품꾼이다.
- 적용: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자 (How)
 -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자.
 - 주변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자.
 -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성서일기

2025년 학년별여행 후기

처음이 아닌 두 번째로 가는 여행이어서 기대하면서 가는 여행이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일 기대가 되었던 야구와 오션월드 전부 다 재미있었다. 아쉬웠던 것도 하나 고르자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것이 많아서 만족하는 여행이었다. 여행을 위해 기도해주신 공동체 분들과 부모님 분들 수고해주신 이어진 선생님 여행을 주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푸른꿈사랑방 권민상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온 이번 학년별 여행은 큰 일정 없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친 힐링, 그 자체의 여행이었다.

개강, 종강 여행지로 많이 갔었던 속초로 여행을 떠났는데 학년끼리만 가서 그런지 새로웠다.

숙소가 너무 좋아서 여러 시설들을 유용히 이용하였고, 수영장에서도 실컷 놀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은 곳이었다.

속초의 바다는 너무 푸르고 맑았다. 해파리의 방해로 마음껏 수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즐겁게 놀았고, 매일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 신나게 했다.

식사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합이 척척 맞는 우리 학년을 보며 5년 동안 생활하면서 단합이 잘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함께 지내온 시간은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너무 즐거웠는데 피곤함에 매번 먼저 자러가야 했던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도 충분히 즐겼다.

아프신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우리와 함께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학년에게도 고맙다.

푸른꿈사랑방 진나우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43 : 3-5

35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6 : 22-23

91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요한복음 14 : 1-7 인도자
430 그루터기사랑방

“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가?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171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민아 장성아 / 봉헌위원 : 전경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 아버지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길을 아는 것. 길을 모르면 불안합니다. 주변에 이야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설령 주변에서 방해로 하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갑니다.

생명의 길. 예수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어딘가로 연결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추천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없었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세상에 내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채영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6월의 교육목표는 '서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고 커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도 하면서 사람들은 여러 일을 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용인에 있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가서 경찰관, 소방관, 농부, 건축가에 대해 탐색해보기도 했습니다. 직업 탐색을 하는 것 외에도 볼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오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요일에는 공동체 밭에서 감자를 캐었습니다. 감자줄기를 영차 들어 올리니 뿌리에 대롱대롱 매달린 감자가 보입니다. 이제 꾸러기들이 두더지처럼 감자밭을 살살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감자가 숨바꼭질을 잘하네요!" "찾았어요!" "왕감자에요!" "미니 미니예요!" "감자 캐기는 쉽지 않네요!" 구슬 같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손도 입도 쉬지 않는 꾸러기들이 캔 감자가 어느새 한 가득입니다. 감자줄기를 정리하고 캔 감자를 수레에 실어 자연예배당으로 나르기까지 꾸러기들이 함께 했습니다. 대견한 작은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즐거운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나들이! 하루 종일 꾸러기들을 살뜰하게 돌보고 아낌없는 사랑을 선물해준 언니 오빠 형 덕분에 우리 꾸러기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린이 멋쟁이 언니 오빠 형 최고였어요! 고마워요!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무척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6월여행으로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를 다녀왔습니다. 비 온다는 소식에 어린이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가 짙고 30도가 넘는 무더위였지만 더위도 잊은 채 열심히 놀이 기구도 타고 간식도 사 먹고 파도풀에서 놀고 튜브 슬라이드도 즐겼

배움과 가르침

습니다. 덕분에 단 이틀 동안의 여행이었음에도 어린이들은 까맣게 되었지요. 에버랜드는 어린이학교 처음부터 어린이날 선물로 함께하던 여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보수공사하는 모습을 보니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월요일에 연합나들이 사전모임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요일에 등교했습니다. 재미있는 게임과 간식을 먹고 빛의 시어터 전시회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5살부터 19살까지 큰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하는 경험이 쉽지는 않지만 사랑방공동체학교의 학생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함께하기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굶은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학기말이 점차 다가오면서, 멋쟁이들의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는 한 주였습니다. 거기에 목요일에는 4학년의 해외문화체험과 각 학년 별여행의 보고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멋쟁이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주에 '포천시 청소년예술제'에 멋쟁이들이 사물놀이를 참여하게 되어서, 시간이 빌 때마다 멋쟁이들이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답니다.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 속에서 땀을 흘리며 여러 가지 준비를 감당하니, 정말 대견합니다. 더욱이 장신대 신대원에서 방문하신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하고, 금요일에 있던 연합나들이에서도 기를 빨리면서도 꾸러기와 어린이들을 잘 챙기고 함께 놀고 있으니, 참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편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생일파티를 하며 즐겁게 놀았고, 미국에서 오신 크리스티나 선생님과도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동심화학습에는 음악 기초와 합창에 대해 새롭게 배우는 특별한 한 때를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멋쟁이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참깨 밭에서

어린 시절 노래 가사에서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다”라는 가사가 새삼스럽다. 비오는 날 아침이면 빗소리를 듣는다. 이불 속에서 밭에 안 나가도 되는 게으름을 누려보는 장마의 초입이다. 이렇게 이불 속에 있는 날은 실컷 게을러서 좋고, 맑은 날은 아직 사위가 조용한 오솔길을 거미줄을 헤치며 새소리를 들으며 밭으로 가는 발걸음도 좋다.

어제는 비가 와서 깨밭에 들어가길 못했다. 오늘에야 지난번에 정리하다만 밭을 정리한다. 처음에 심은 참깨는 밭아가 채 10%도 되지 않아, 다시 심은 밭에 이번에는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한 줍씩 깨를 뿌렸는지 적은 곳은 4~5개의 모종이 나고, 많은 곳은 20~30개의 모종이 나기도 해서 2개의 모종만 남기고 모두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참고로 참깨 밭은 10개의 정도의 이랑이다. 이랑도 짧아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해 낼 일이지만, 일을 못하는 나는 처음에 2시간 반에 걸쳐서 4~5이랑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과 4이랑을 하고 2이랑이 남았는데 그걸 다 못하고 비가 오고야 말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야 나머지를 했는데 거의 두 시간이 걸렸다. 이유는 처음 정리한 시간이 지난 월요일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싹들이 많이 자라서 암전히 뽑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 가느다란 모종들이 뻑뻑이 자라서 키가 훌쩍 큰데 비해 가늘어서 꺾어지기도 쉽고, 뿌리들이 옆으로도 자라 있어서 남겨야 할 모종을 건드리기가 십상이었다. ‘역시 농사-ㅋㅋ 이것도 농사라고...-는 시기를 늦춰서는 안되는 거구나.’ 하며 밭 가운데 서서 도(道)터지는 소리를 했다. 그리고 나서야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비오는 날에도 밭에 나가보는 농부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침에만 한 번씩 가보는 밭이다. 상추를 따도 남보다 한참 느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도 시간만 잡아먹는다. 밭에 나가도 일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모르면 그냥 잡초나 뽑으라는 모(?)집사님의 말을 생각하며 잡초질을 한다. 밭에 나가면 바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인지 난 밭이 참 좋다.

그루터기사랑방 전경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293, 430

성 경 : 요한복음 7:14-18

말 씬 :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동지역의 전쟁을 위해>

전쟁이 확장되지 않고 중동지역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특별히 요르단에 계시는 임채정 선교사님 가족들과 그 사역이 안전할 수 있기를.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녹색교회>

기후위기와 온난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회들이 생태계와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기를 앞장설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어린이학교 여행의 안전을 위해

2) 교회 밖 현장 실천으로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는 장신대 신대원 2학년 학생들을 위해.

3) 사랑방공동체 학교 연합나들이를 통해 학교들의 하나됨을 더욱 다질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이번 주는 공동체에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지난 주일부터 공동체에 생활하면서 멧쟁이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에는 장신대 신대원 2학년들 열 분이 교회밖현장실천이라는 과정으로 토요일까지 공동체에 머물다 가셨습니다.

갑작스런 큰 비로 옥수수대가 넘어가고 고추도 쓰러지는 일이 있었지만 큰 탈 없이 농작물들은 밭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긴 장마 기간 동안 공동체 식구들 모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